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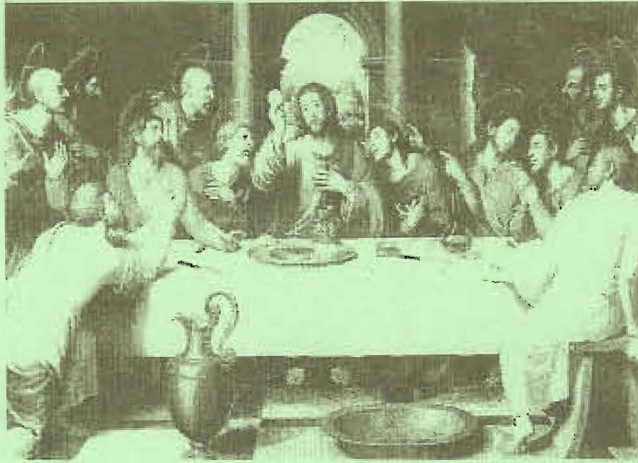


#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예수 성심 성월)  
제31권 31호(가혜) 2011-6-26

## [묵상]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아버지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전달하시고자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한 아버지의 마음은  
외아들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데  
십자가상의 희생제물 봉헌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저희들 안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도록  
당신 외아들의 삶과 피를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 내어주시니  
외아들의 남김 없는 봉헌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이 온전히 느껴집니다.

당신의 삶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는  
당신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시니  
저희가 성체와 성혈을 모실 때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 안에 머뭙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강태시 연락처) : (310)720-8240

|       |                              |                                |
|-------|------------------------------|--------------------------------|
| 수 요 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목 요 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금 요 일 | 아침 미사                        | 오전 8:30                        |
| 토 요 일 |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br>특전미사 (청년미사) | 오전 8:30<br>오후 7:00             |
| 주 일   | 아침 미사<br>학생미사(영어)<br>낮 미사    | 오전 7:30<br>오전 9:30<br>오전 11:00 |

## 주간 행사표

|       |                                                                                                                                                                                      |                                                                                            |
|-------|--------------------------------------------------------------------------------------------------------------------------------------------------------------------------------------|--------------------------------------------------------------------------------------------|
| 수 요 일 | 면담의 날<br>(신부님, 수녀님)<br>에비자 교리반<br>레지오 마리아                                                                                                                                            | 오후 2:00<br>오후 8:00<br>오후 8:00                                                              |
| 목 요 일 | 성 시간 (첫목요일)<br>레지오 마리아<br>전신자 성경통독                                                                                                                                                   | 저녁 미사후<br>오전 9:00<br>오전 11:00<br>오전 10:00, 오후 8:00                                         |
| 금 요 일 | 병자영성체(1째주)<br>M.E. Sharing(3째주)                                                                                                                                                      | 오전 10:00<br>오후 7:00                                                                        |
| 토 요 일 |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br>성령기도회<br>배론 청년모임                                                                                                                                                  | 오후 6:00<br>오후 8:00<br>오후 6:00                                                              |
| 주 일   |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br>아도라떼 성가대<br>글로리아 성가대<br>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br>2째주 - 모임의 날<br>●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br>자모회, 대건회/원서회<br>● 꾸리아<br>3째주 - 빈첸시오회<br>● 울프레아<br>● 행사의 날<br>4째주 - 사목회<br>가정의 날 | 오전 중<br>오전 8:30<br>오전 9:00<br>오후 1:00<br>오후 1:00<br>오후 2:30<br>오전 9:00<br>낮미사 후<br>오후 1:00 |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강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                                                                                                                                                                                                                    |
|-------------|--------------------------------------------------------------------------------------------------------------------------------------------------------------------------------------------------------------------|
| 토 요<br>특전미사 | (연)박만춘 아우구스티노 사제,<br>이덕철 루카, 권순봉 요안나<br>(생)정해홍 요셉, 이준 마커스, 홍광선 요셉                                                                                                                                                  |
| 주 일<br>낮 미사 | (연)박만춘 아우구스티노 사제,<br>이덕철 루카, 이숙자 루피나, 고준희 제임스,<br>박송희, 엄익찬 안토니오, 김완태 다미아노,<br>신태동 요아킴, 임규호 & 임송자,<br>윤기출 마리아, 김석돈 요셉, 크리스티 커밍스,<br>장도영 엘리사벳, 엄은섭 도로테오,<br>이주영 베드로 & 이상영 원선시오<br>(생)이영희 카타리나, 권오상 바오로,<br>문 밥티스타 수녀 |

###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신명기(Deuteronomy) 8,2-3.14-16

화답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네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려신다.○  
○그분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밭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그분은 당신 말씀 아홉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제 2독서 코린토 1서(1Corinthians) 10,16-17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복 음 요한(John) 6,51-58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물리라.

### 오늘의 성가

|     | 청년미사(특전)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미사곡 | 51-58    |       | 33-42 |
| 입당  | 106      | 106   | 106   |
| 봉헌  | 목마른 사슴   | 286   | 269   |
| 성체  | 283      | 291   | 291   |
| 파견  | 240      | 310   | 245   |

###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 ▶ '생명의 성역'인 가정

노인을 무시하고 그들을 철저히 거부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 노인들이 가정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또는 주거 공간이 좁거나 다른 이유들 때문에 가정 내에 있을 수 없는 경우 적어도 가정과 가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연령 집단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의사소통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계약"을 보존하고, 그것이 사라져버린 곳에서는 다시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들이 말년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자녀들을 세상에 낳아 베풀어준 수고와 연대성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에 순명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노인을 단지 관심과, 친절함과, 봉사의 대상으로만 여겨서는 안된다. 노인들은 스스로 생명의 복음에 대한 가치있는 공헌을 하고 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얻은 경험의 풍부한 보화 덕분에, 노인들은 희망과 사랑에 대한 이해와 증거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인류의 미래는 가정에 달려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대의 사회, 경제, 문화의 여건이 생명에 봉사하는 가정의 책임을 더욱 힘들고 더욱 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생명을 사랑하고 환영하는 사회의 한 세포인 가정이 "생명의 성역"으로서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다. 지역사회와 국가는 가정이 진정한 인간적 방법으로 그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원조를 조장해 주어야 한다. 교회로서는 모든 가정들이 생명의 복음을 발전시켜야 할 사명을 재발견하고,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그 사명을 생활화하게 해줄 수 있는 가정사목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 ▶ 문화의 변모를 이룩함

95).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내십시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행위에 끼어들지 마십시오."(에페 5,8.10-11). "생명의 문화"와 "죽음의 문화"가 극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대사회의 상황 속에서는, 참된 가치와 진정한 필요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예리한 비판적 감각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의심을 총체적으로 동원하고, 생명을 지원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의 윤리적 노력이 절박하게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함께 새로운 생명의 문화를 건설해야 한다. 이 문화가 새로운 문화인 까닭은, 인간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전례없는 현대의 문제들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더욱 깊고 더욱 역동적인 확신을 가지고 채택하게 될 문화이기 때문이다. 모든 분야들 사이의 진지하고 용기를 주는 문화적 대화를 가져올 능력을 지닌 문화이기 때문이다. (◆계속)

##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신부님! 성체 작은 것 말고 신부님 먹는 큰 것으로 주세요!”

예전에 어린이 미사 중 영성체 시간에 한 꼬마가 느닷없이 한 말에 저는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왜?” 그 아이가 어물어물 대답을 못하자 뒤에 서 있던 다른 꼬마가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야 임마! 큰 거나 작은 거나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예수님이야, 그냥 믿고 먹어!”

지금 생각해도 똑 부러지는 대답입니다. 아마도 큰 성체를 저에게 달라고 한 아이는 작은 성체보다 더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지 모릅니다. 가끔 그 생각을 하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천진스런 아이들의 깨끗한 동심이 마냥 부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첫 영성체를 하던 날의 기억도 새롭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군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이 성체성사에 관한 가르침은 예나 지금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당시에든 많은 군중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며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사정은 측근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왜 군중들과 제자들은 위와 같은 말씀들을 알아들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이해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최후의 만찬 때 비로소 밝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기 전날 밤, 빵과 포도주를 들고 기도하시고 축성하신 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빵과 포도주가 당신의 살과 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후에도 이 예식을 행하고 그때마다 당신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체성사의 가르침은 성령의 빛과 도우심이 없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사를 봉헌할 때 사제가 축성하는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사 때 주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기억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 몸소 죽으신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의 값으로 이루신 구원의 결실이 미사를 지내는 지금 우리 안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체험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떠밀려가듯 바쁘고 지친 삶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 그리고 삶의 목적, 많은 은인들의 소중한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성체성사를 삶에서 체험하는 시작이 됩니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 이번 주 전례 봉사자

| 이번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이호미<br>엘리사벳    | 박희자<br>마리아   | 최진수<br>에우세비오 |
| 제1독서자 | 김정아<br>아나스타시아  | 이상철<br>크리스토퍼 | 이민상<br>요한    |
| 제2독서자 | 서현수<br>율리아     | 이희경<br>크리스티나 | 이순자<br>비비안나  |
| 제물봉헌자 |                |              | P.V.<br>3반   |

### 다음 주 전례 봉사자

| 이번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송민영<br>보나      | 박희자<br>마리아  | 채승희<br>에스티  |
| 제1독서자 | 서현수<br>율리아     | 박진수<br>스테파노 | 유철희<br>바오로  |
| 제2독서자 | 진지요<br>글라라     | 박혜경<br>레나타  | 유현자<br>안나   |
| 제물봉헌자 |                |             | 토런스<br>서 3반 |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례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

- 성체 송가<21절부터 24절까지 짧은 양식> -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돌이키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발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 ◆ 본당 신부님 특강과 사목회 신·구임원 합동연수

7월1일부터 시작되는 교회 새 회계연도(2011.7.1~2012.6.30)를 앞두고 본당 사목회 신·구임원들의 합동연수와 본당 신부님의 특강이 있습니다.

- 본당신부님 특강 : 오늘 주일(26일) 오후 1시~2시30분  
주제 : "올바른 신앙을 위하여"

일반 교우들도 함께 청강할 수 있습니다.

- 신·구임원 합동연수 : 오후 2시30분~오후7시  
재단제장들께서도 필히 참석해주십시오.
- 장소 : 성전(특강), 강당(연수)

### ◆ 한국외방선교회 선교지 체험단 모집 오늘 주일 마감

- 체험지 : 파푸아뉴기니(인도네시아 인근)
- 모집인원 : 5명(가톨릭신자 또는 비신자)
- 기간 : 7월27일~8월4일
- 경비 : 개인부담 \$2,200
- 문의 : 한창주 요아킴 ☎(310)530-7702

### ◆ 7월 봉성체와 성모신심미사, 성시간

- 봉성체 : 7월1일(금) 오전 9시30분부터
- 성모신심미사 : 7월2일(토) 오전 8시30분
- 성시간 : 7월7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진행:토런스 남구역

### ◆ '야외 십자가의 길' 개인 봉헌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숙원사업의 하나인 '야외 십자가의길' 조성 관련, 재단체들의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뜻있는 개인의 봉헌을 기다립니다. \* 문의 : 본당 신부님

### ◆ 유아세례식

- 일시 : 7월2일(토) 오후 6시
- 대부 대모를 정하시고 세례식에 꼭 함께 참석하십시오.

### ◆ 어린이 평일 복사단 모집

- 봉사일시 : 주중 수요미사와 목요미사(저녁 7시30분)
- 자격 : 첫영성체한 초등부 어린이 \* 문의 : 본당 수녀님

### ◆ 본당설립30주년 기념 종합예술대전 준비

- 일시 : 9월 한달간
- 전시작품 : 서양화, 동양화, 조각, 서예, 사진, 공예, 퀼트, 한국화, 민화, 꽃꽂이 등 백삼위교우들의 취미활동 작품
- 가칭 준비위원 : 김윤진 카타리나, 김선제 바오로, 한장환 안토니오, 이명순 크리스티나, 이명렬 라파엘, 김선영 글라라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 묵주기도 30만단 바치기

- 묵주기도 봉헌함 : 일주일에 한번씩 묵주기도 봉헌표를 제대앞에 마련된 묵주기도 봉헌함에 넣어 주십시오.
- 6월24일 현재 22만7천625단 봉헌(달성율 : 75.9%)

### ◆ 본당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것, 관리를 잘 합시다.

강당, 회의실과 유아실, 2층 모든 교실을 사용한 후 비품을 원래 놓여있던 모양대로 제자리에 놓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등은 물론 냉난방 기기를 반드시 꺼주세요. 각 방의 창문을 사용한 후에는 꼭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시설물은 한 두사람의 손길로 관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우 모든 분들의 관심있는 손길을 타야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성당을 나가는 모임의 책임자들은 문단속(현관문+바깥Gate)을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6월26일(주일) : 토런스 서 3반(비빔밥 \$3)
- 7월3일(주일) : 독립기념일 연휴로 친교자리 없습니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                                 |                                 |                                 |                                 |                                 |                          |
|----------------|---------------------------------|---------------------------------|---------------------------------|---------------------------------|---------------------------------|--------------------------|
| 교무금            | 김양금<br>노세미<br>안태갑<br>이효세<br>최길주 | 김 욱<br>박정희<br>육근주<br>임 순<br>최현찬 | 김윤진<br>성지용<br>윤희동<br>정병훈<br>추서희 | 김 은<br>송영미<br>이근태<br>정해홍<br>황인종 | 김정웅<br>송준규<br>이인석<br>정훈모<br>황지영 | 나경흠<br>신순철<br>이재용<br>주영석 |
| 합계 : \$2,945   |                                 |                                 |                                 |                                 |                                 |                          |
| 미사헌금 : \$2,801 |                                 |                                 |                                 |                                 |                                 |                          |

|              |                          |                          |                          |                          |                   |                   |
|--------------|--------------------------|--------------------------|--------------------------|--------------------------|-------------------|-------------------|
| 성전헌금         | 김양금<br>성지용<br>이일길<br>최길주 | 김 욱<br>신순철<br>이효세<br>최현찬 | 김윤진<br>안태갑<br>임 순<br>황인종 | 나경흠<br>윤희동<br>정해홍<br>황지영 | 노세미<br>이근태<br>정훈모 | 박정희<br>이인석<br>주영석 |
| 합계 : \$1,685 |                          |                          |                          |                          |                   |                   |
| 감사헌금 : 황예리   |                          |                          |                          |                          |                   |                   |

## 공지사항

- ◆ 학생미사(주일 오전 9시30분)에 빠지지 맙시다.
  -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일 학생미사는 그대로 진행중이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 새학기 주일학교 등록 받습니다.
  - 1차접수 : 6월26일까지  
(첫째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수업료 없음)
  - 2차접수 : 8월21일~9월11일(등록비 \$20 추가됨)
  - 자모회비 : 한가정당 \$40
  - 개강 : 9월11일(주일)
- ◆ 주일학교 서머캠프 마치고 성당 도착
  - 캠프후 성당 도착시간 : 오늘 주일(26일) 오후 5시 예정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학년~12학년
  - 일시 : 7월29일(금)~31일(주일)
  - 출발 : 금요일 낮12시 성당집합
- ◆ 주일학교 은총시장에 도네이션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금지원 : 이현주 켈트루다, 자모회

## 남가주 소식

- ◆ 제21차 젊은이들을 위한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일시 : 7월1일(금) 오후 7시~4일(일) 오후 4시
  - 장소 : Divine Word Retreat Center(Riverside)
  - 지도신부 : 최석현 마르코 신부
  - 참가대상 : 18세~33세 미혼 및 기혼 청년
  - 회비 : \$170(6월20일 이후 \$190)
  - 문의 : 남가주 성령쇄신 청년봉사회(KYCR)  
☎(213)268-6820 Ame Kim
- ◆ 제24회 남가주 한인가톨릭 성령쇄신대회
  - 일시 : 8월20(토), 21일(일)
  - 주제 :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18)
  - 장소 : 페사디나 시티 칼리지 색슨 오디터리엄  
(1570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6)
  - 지도 : 배기현 신부, 이상재 신부, 정현철 신부, 정희욱 신부, 한상만 신부, 황창연 신부
  - 참가비 : \$25
  - 문의 : 각본당 성령기도회
- ◆ 고재용 교수, 주일학교 학생대상 첼로 레슨
  - 지도교수 : 고재용 베드로(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석박사, 부산 동아대교수, 첼로/바이올린 교재46권 출판)
  -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자녀의 음악적 재능을 확인, 성격과 신체조건에 따라 악기선택을 권해드립니다.  
(그룹지도 가능) \* 문의 ☎(213)550-6203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 소공동체 부 장                         |     | 김찌니 클라라                 | (310)612-8840                              |
|----------------------------------|-----|-------------------------|--------------------------------------------|
| 차 장                              |     | 박희자 마리아                 | (310)325-6982                              |
| 차 장                              |     | 이경수 헬레나                 | (310)415-0034                              |
| 구역/장                             | 반   | 반장                      | 장소/날짜                                      |
| 토런스 동<br>유원자<br>안나<br>320-3697   | 1   | 변혜경 올리아나<br>920-5153    | 김양금 안나 518-3041<br>6/10(금) 오후 7시           |
|                                  | 2   | 한창주 요아킴<br>530-7702     | 장수영 패트릭 (213)489-9888<br>6/18(토) 오후 7시, 강당 |
|                                  | 3   | 문지숙 엘리사벳<br>800-5612    |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
| 토런스 서<br>장정진<br>베토니카<br>713-7783 | 1   | 이진향 아네스<br>989-0366     | 김교복 레오 328-1817<br>6/17(금) 오후 7시           |
|                                  | 2   | 이크리스 아가토<br>619-7763    | 이명렬 라파엘 374-1572<br>6/4(토) 오후 6시           |
|                                  | 3   | 권영옥 투시아<br>720-2876     | 최은경 카타리나 650-3134<br>6/8(수) 오전 10시30분 성당   |
| 토런스 남<br>박희자<br>마리아<br>325-6982  | 1   | 이명자 마가렛<br>433-9025     | 김화숙 올리아나 433-9075<br>6/17(금) 오후 7시30분      |
|                                  | 2   | 이경수 헬레나<br>415-0034     | 임진희 한나 720-7898<br>6/8(수) 오전 10시30분 성당     |
|                                  | 3   | 안희경크리스티나<br>750-4051    | 오택환 바오로 750-4051<br>6/25(토) 오후 7시30분       |
| 토런스 북<br>최미열<br>클라라<br>895-8624  | 1   | 조화숙 안젤라<br>213-272-8393 | 김복희 토사리아 920-4720<br>6/10(금) 오후 7시         |
|                                  | 2   | 1반과 같음                  | 1반과 같음                                     |
| 하버 카슨<br>윤남열<br>세라피나<br>365-9750 | 1/2 | 박혜경 레나타<br>808-5005     | 유영균 우르바노 985-2882<br>6/11(토) 오후 7시         |
|                                  | 3   | 이영희 카타리나<br>518-1736    |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
| P. V.<br>김명재<br>아가다<br>866-8778  | 1   | 남경희 베네딕타<br>384-3289    | 오영섭 스테파노 748-7323<br>6/10(금) 오후 7시         |
|                                  | 2   | 김숙희 유소사<br>544-4807     | 오석만 사무엘 750-6007<br>6/10(금) 오후 7시          |
|                                  | 3   | 박은혜 클라우디아<br>377-7063   |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br>6/10(금) 오후 7시        |
|                                  | 4   | 강숙경 도미니카<br>541-0767    | 영희가보라 프란체스카 544-1009<br>6/27(월) 오전 10시30분  |

## 이번 주 단체 모임

|               |             |
|---------------|-------------|
| 사목회 신규임원 합동연수 | 오후 1시~7시 강당 |
|---------------|-------------|

## 다음 주 단체 모임

|             |          |
|-------------|----------|
| 구역장 / 반장 회의 | 오후 1시 강당 |
|-------------|----------|

## 주보로 배우는 교리

## 청소하다 실수로 성모상을 깨뜨렸는데...

▶ 어느 날 청소하다 실수로 성모상을 깨뜨렸습니다. 당황하여 얼떨결에 쓰레기통에 넣어 버렸는데 영 마음이 찢찢합니다. 줄이 끊어진 묵주 등 가끔 못 쓰는 성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가끔 누군가가 파손된 성상을 성당 한 귀퉁이에 압전히 갖다 놓은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깨어진 성상을 버리자니 공연히 죄스럽고, 그렇다고 달리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에 성당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갖다 놓았으리라 짐작됩니다. 성모상을 비롯한 성물을 구입하면 신부님께 방사를 받습니다. 성물을 사용함으로써 하느님의 축복이 사용하는 이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준성사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준성사 자체가 은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방사 받은 묵주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실제로 기도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성물은 방사를 받음으로써 그 용도가 거룩함에 쓰이도록 조건 지어졌기에 비록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다른 물건과는 달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잘 썬 뒤에 땅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아파트에 산다든가 하여 실제로 땅에 묻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 보관해 두셨다가 적당한 기회에 야외에 나가서서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은 본당 차원에서 일정한 시기에 이를 수집하여 한꺼번에 적당한 장소에 묻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 그리스도교의 일치운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대사제이신 예수의 기도에서 성부께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주소시오.”(요한 17장 참조)라고 기도하시며 교회의 단일성을 표시하고 실현하는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과 함께 성신을 보내시어 교회를 믿음과 사랑의 일치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신이 함께하는 교회의 하느님의 백성이지만 순례하는 교회의 역사에서 볼 때 많은 교파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서로 용서하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협조하기를 제안한「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을 통해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일치운동은 교회의 여러 가지 요구와 시대의 요청에 따라 그리스도교들의 일치를 위한 활동과 사업을 지칭합니다. 즉 갈라진 형제들의 상태를 공평하고 옳게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말과 판단과 행동을 제거하려는 모든 노력을 말합니다. 또한 여러 교회와 단체의 그리스도교인들이 종교적 정신으로 모인 회합에서 잘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각기 자기 공동체의 교리를 깊

이 설명하고 그 특징을 명백히 말해주는 ‘대화’를 말합니다.”(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4항).

## ▶ 우리 나라에는 103위 순교 성인이 있는데 성인과 복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 교회에서는 생존 시 영웅적인 덕행으로써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는 분을 가려 성인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복자는 죽은 사람의 덕행성을 증거하여 부르는 존칭 중 하나로서 복자 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시복식이라는 교회 의식을 갖게 됩니다.

한국의 순교 성인 103위 중 1925년에 시복된 한국의 79위는 1839년 기해박해와 1846년 병오박해 때 순교한 분들이고 1968년 복자 위에 오른 24위는 1866년 병인박해 때의 순교자들입니다.

복자와 성인의 다른 점은, 성인(성녀)은 전 세계 어디서나 공식으로 공경을 드릴 수 있으나 복자(복녀)는 어떤 지역 교회나 단체에서만 공식적으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가 아닌 일반인이 복자가 된 후 두 번 이상의 기적이 일어난 경우 시복식을 거쳐 성인대열에 오릅니다. 교회가 선언한 성인이 되면 정식으로 교회 축일표에 수록, 전 세계 신자들이 공경하게 됩니다.

## ▶ 예수님의 승천과 성모승천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 성모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로 간택되었기에 미리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어 모든 죄에 물들지 않은 특전을 받은 분입니다.

성모님은 원조 예와 대신해 제2의 예와로서 제2의 아담인 예수님과 함께 구원사업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신학적 용어로 공속자(公贖者)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께서 영원으로부터 구세주로 섭리되었듯이 마리아도 영원으로부터 인류구원의 협조자로 계획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죽음과 고통은 인간이 범한 죄의 결과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고통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새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인류 구원의 완성이라면 성모님의 승천 역시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의 육신은 공심판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하느님께서 그의 육신은 공심판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하느님께서 성모님의 죄 없으신 육신을 미리 부활시키고 승천시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하느님이기에 자력으로 승천하셨지만 성모님은 원죄 없으신 잉태의 특전을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로 받았고 그의 승천도 주님의 은혜로 하늘로 불림을 받았기에 ‘성모 몽소 승천’이라고도 합니다.

<◆자료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